



고소작업대에서 사용하기 위한 안전대 및 짐줄의 사용 전 점검 위험예지활동(TBM)

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(PFPE)의 사용 전 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

안전대 및 짐줄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방지하므로, 사용하기 전에 항상 상태와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사용하다 보면,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(PFPE)가 손상되거나 마모되거나 부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점검은 매번 사용하기 전에 반복해야 합니다.

사용 전 점검은 무엇입니까?

-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
- 다음의 안전 상태를 확인합니다:
 - 안전대 직물 및 짐줄 직물 또는 로프
 - 안전대 버클 연결
 - 안전대 또는 짐줄의 조정 버클
 - 안전대 부착 지점
 - 안전대와 짐줄의 바느질 패턴
 - 카라비너 또는 스냅-후크 연결하기
 - 모든 라벨 및 일련 번호(SN)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.

어떻게 해야 할까요?

안전대와 짐줄의 사용 전 점검에는 세 가지 기본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.

- **찾기** (차이점이나 손상을 찾기 위해 비슷한 두 가지 요소를 시각적으로 비교)
- **느낌** (손끝으로 합성 물질을 훑어본다 이렇게 하면 손상된 섬유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점검이 가능합니다.)

누가 알아야 합니까?

위험예지활동(TBM)은 다음에 적용됩니다:

- 작업대에 있는 조종사 또는 작업자
- 사용자 (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사용을 통제하는 사람)
- 현장 관리자 및 감독자

- **기능 확인** (카라비너, 스냅-후크, 조정 및 연결 버클 모두 기능 확인 필요)

의심스러운 경우 IPAF 안전대 및 짐줄 사용 전 점검 포스터를 참조하십시오!

기록을 남겨야 하나요?

사용 전 확인의 증거를 기록하는 것이 좋지만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(PFPE)의 사용 전 확인을 기록해야 하는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.

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(PFPE)에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만약 결함이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(PFPE)의 안전한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.

1. 격리시킨다. -
2. 태그를 단다. - 그리고 사용에서 제외
3. 보고한다. - 고용주에게

**결함이 있는 추락방지용
개인보호구(PFPE)를
사용하지 마십시오.**



유익한 참고자료

- 앤디-엑세스 A21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(PFPE) 사용 전 검사포스터 (www.ipaf.org/andyaccess에서 확인 가능)
- 스팸넷 안전대 및 짐줄 검사 앱 및 포켓 카드
- 개인보호장구(PPE) 규정
- BS 8437:2005+A1:2012: 작업장에서 사용할 개인 추락방지 시스템 및 장비의 선택, 사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실행 지침